**유시연 (violin)**

우아한 해석과 음색에 대한 천부적인 섬세함, 특유의 고전적인 순수미를 바탕으로 바로크부터 현대, 클래식 음악과 세계의 민속음악을 오가며 새로운 음악적 결실을 일구어가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연. 서울대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커티스 음악원을 거친 뒤, 영국 왕립음악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Artist Diploma를,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김남윤을, 해외에서는 아론 로잔드와 로드니 프렌드, 쇼코 아키, 라자르 고스만을 사사하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2000년부터는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이자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시연은 일찍이 국내의 유수 콩쿠르를 석권하며 연주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한국일보 및 이화경향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해 ‘소년, 소녀 협주곡의 밤’과 ‘청소년 음악회’를 통해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선화예고 재학 시 동아일보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고,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청소년 음악가상’을 받았다. 실내악에도 관심을 보여 예일 음악대학의 상임 현악 4중주단의 First violin 연주자로서 도쿄 현악 4중주단의 집중적인 코치를 받으며 예일 대학교를 대표하여 수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유시연은 아이작 스턴, 핀커스 주커만, 이고르 오이스트라흐, 이다 헨델, 헤르만 크레버스, 죠세프 긴골드, 도로시 딜레이, 료 테라카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여 그들의 음악세계를 전수받았는데, 특히 이다 헨델과 헤르만 크레버스, 로드니 프렌드의 가르침은 그녀의 음악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95년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네덜란드 순회공연을 가졌고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 등지에서 리사이틀과 협연을 하여 전문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갔다. 한편 2008년과 2009년, 2014년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캄머 잘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후원으로 베를린 데뷔 리사이틀을 열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매년 하절기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Cambridge International String Academy의 교수로 초청되어 마스터 클래스와 연주를 하고 있다.

많은 활동 가운데에서 연주자로서 유시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시연의 테마 콘서트’를 꼽을 수 있다. 고전 레퍼토리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꾸준히 보여준 동시에 정형화된 테두리를 벗어나 탱고와 세계의 민속음악, 바로크 음악, 종교음악 등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바이올린 음악의 지평을 확장해왔다. 특히 그녀는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이 프로젝트는 SONY 레이블에서 발매한 [Pasion, Amor & Piazzolla]라는 제목의 앨범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유시연은 자신의 관심을 우리 국악으로 돌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을 사사하며 국악기의 연주법을 배운 뒤, 단순히 국악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소리에서 사용되는 농현, 시김새, 음영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연주기법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리랑’과 보허자, '한오백년'을 연주하여 국악과 서양음악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했고, 이는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홀과 영국의 Trinity Chapel에서 선보여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악에 대한 관심이 일회적인 것에 끝나지 않도록 꾸준히 바이올린에 대한 국악적 접근을 해 나갈 것이라는 그녀는 국악 창작곡과 소품들을 모아 2014년 두 번째 음반인 'Reminiscence' 를 SONY Classical 레이블에서 발매하였다

유시연의 홈페이지\_ www.siyeonryu.com